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원우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쌀' 250포 기부

- 취약계층 지원 위해 쌀 250포 전달... 지역사회 상생 나눔 이어가
- 지역 대표 아카데미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의지 밝혀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 총원우회(회장 김태한, 이하 총원우회)는 올해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총원우회는 쌀 250포대(10kg, 약 1,000만 원 상당)를 안산시(시장 이민근)에 전달하며 연말 지역사회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번 '사랑 나눔 쌀' 전달식은 11월 24일(월)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총원우회 김태한 회장을 비롯해 유효상 명예회장, 서재형 수석부회장, 이광옥 사무총장, 최명진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한 안산상공회의소 김철봉 회장 직무대행을 대신해 참석한 이성균 사무처장도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태한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손길이 필요하다"며 "총원우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겨울철 생계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원우회는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CEO아카데미 총원우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한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 이러한 나눔이 우리 지역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전달된 쌀은 안산시 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계 부담을 겪는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산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는 안산지역 상공인과 리더들을 대상으로 미래경영에 혜안을 제시하고자 2018년 출범하였으며, 현재 아카데미 8기까지 약 3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안산의 명품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붙임> 사진자료. 끝.

